

계부사



[해제]

이는 20자에 이르는 긴 두루마리에 줄글체로 필사되어 전하는 내방가사(內房歌辭)이다. 작자와 제작 연대는 밝혀 있지 않다. 그 내용은 지어미가 된 딸에게 시집살이에서 갖추어야 할 갖가지 행실을 훈계하는 글로 되어 있다. 제목이 뜻하는 대로 계부(戒婦)의 가사체 작품이다. 그러나 사설의 말머리는 먼저 딸의 훈처 고르기부터 시작한다. 훈례 날을 정하여 성혼시키되, 시집가는 길의 서러움과 연연(戀戀)한 정, 그리고 혼인 잔치 때의 손님맞이 일 등을 120여 구에 이르는 많은 사설을 동원하여 서술하였다. 작품의 주제가 되는 지어미 훈계 내용은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 총 410구 가운데 약 290구에 이르는 사설로서 노래의 주된 의미는 물론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격적인 계부의 지시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을 범하지 말고 삼종지도(三從之道)를 성실히 배우라는 데에서부터 비롯한다. 긴 사설을 펼치면서 강조한 중요 부분 몇 가지를 들면, 시부모께의 효양(孝養), 인간 윤리로서 삼강오륜, 시집살이에서의 침선 방적(針線紡績)과 음식 절차, 지어미 말씨에 유순(柔順)함과 순종 및 말조심 등 여자 행실의 갖가지이다. 따라서 내용의 중복도 적지 않다. 훈계하는 말씨를 직접적으로 훈고(訓告)하는 서술 형식에 담아 화법적(話法的) 수사를 되풀이한 점이 특이하다. '조심하라'는 말의 반복을 위시하여, 명령사(命令辭) 또는 금지사(禁止辭) 등을 수없이 거듭한 점이 지적된다. '~말라, ~말고, ~말며' 등의 금지사를 30회를 넘게 반복한 점은 이 가사의 성격을 알게 하는 표현의 한 특징이라고도 하겠다. 노래의 형식상 구성은 무려 410구에 이르는 장편의 가사체이다. 4.4조가 295구요, 3.4조는 111구이며, 4.3조 등 예외적인 성구(成句)는 나머지 4구에 불과하다. 이로 보아 <계부사>의 서술 율격은 4.4조를 위주로 하고, 거기에 3.4조를 혼합한 전개로서, 우리의 전통가사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관습시(慣習詩)의 한 전형으로 지적된다.

[원문]

부모칭전 친정이라 공논하고 자로보스
어와 동유들아 이니말삼 잊지마소

계부사

자부씨야 자부씨야 이니말삼 드러바라
니말이 속되나마 명심하여 기록하라
천지간 만물중의 인칭일시 최귀하다
이세상의 첫지자이 남겨흔가 제일이라
그후연춘 정월의 피초가의 구혼할제
믹조와서 험는말이 이웃연첩 일가집의
규수있다 발설하고 일절쫓타 조라하니
이곳저곳 훈처잇서 징선하여 직촉하되
살쓸흔니 전혀업서 의혹이 만스흔초의
이곳제 이미자는 미덥고도 의심업다
일언의 허람하고 일조의 면약하니
영천을 너른쫓되 안동권씨 성문이라
아미도 조흔연분 월노승을 믹조편가

북북명안 조흔씨요 작작도화 가기로다
 그히가을 열년보닉 초레날을 퍽정하니
 제일조흔 복덕일은 링동십월 영일이라
 흐인불너 지촉하여 인시초의 발횡하니
 월식은 명낭하여 갈짚이 분명하다
 뒤씨초 니십니을 순식간의 득달하니
 동방이 게오발가 인적이 고요하다
 문밖에 비겨서서 이닉마암 구펴보니
 일촌사람 웃실세라 안문중이 놀닐세라
 시잡아길 써나서 이러키 급흔횡식
 조화라고 흐는닐을 그뉘다려 의논하니
 전안예을 잠관하고 사처방의 안즈시니
 사면친구 촛조와서 오락가락 흐온중의
 일염의 너뭇보와 굵굵기도 그지업다
 자른날이 더딤가고 친구수점 것낫치라
 그이튼날 써날올제 현구석을 차린후의
 너의얼골 잠관보고 첫면목의 깃분마암
 소슬도야 그러흐가 너흐나라 그러흐가
 흐연이 도라와서 자랑자랑 흐온후의
 온집안을 둘러보고 온소슬을 도라보니
 화기만당 춘풍이오 우식작작 히식이라
 아마도 보고준맘 일각이 여삼추라
 연연흐맘 돌디업서 신흥을 지촉하니
 십이월 초사일의 맞치맛기 날이났다
 설흔풍흔 독흔중의 날이맛참 온화하니
 네복이리 그러흐가 날조차 화합하다
 음식비포 더강하고 좌우빈직 청춘히도
 닉당으로 들너보니 노소닉직 빈틈업고
 외당으로 나서보니 친구친척 다모혔다
 흐로이틀 지니면서 너흐나 두고보니
 크닥흔 이집안의 네일신이 가득하다
 영이흔 너의모양 볼소록 괴특하다
 나가싸가 집의와서 외당의 괴침하고
 더문안의 드러설제 네가나와 마주우면
 질거온맘 무궁하며 괴특흐맘 그지업고
 일시라도 네가업서 인적이 고요흐면
 이리저리 엿뵈보며 소슬다려 무르면서
 일염의 섭섭하여 잠신들 이질손야

아반임요 어만니요 시시씩씩 흐는소리
 귀예정정 듯고십고 안쌍상방 왕니혀여
 분주이 흐는모양 눈의삼삼 보고십다
 장중의 보옥사랑 흐번보면 그뿐이요
 정전의 조흔난초 이에서 바할손가
 이전의 나무여식 오날은 닉권구라
 익리로 지은인정 엇지그리 다정흔고
 무호보저 너뿐이요 후세여망 너뿐이라
 김퍼울스 이니스랑 흐헝가 얹파까고
 두터울사 이니인정 턱산이 가부양다
 그럴소록 조심혀여 턱연흔맘 두지마라
 옛말흔말 그르잔코 속담이 명담이라
 인정숫턱 쉬가쌀고 사랑숫턱 원망이라
 옛닐을 싱각하고 어진헝실 쏘을바다
 칠거지악 하지말고 삼종지도 비와니여
 일영의 머근마암 일신들 이질손야
 고금의 여자헝실 유순하기 웃듬이라
 사구고 흐는도리 친부모의 다르잔타
 계명초의 잠을씩여 일즉이러 소세하고
 구고쳐소 드러가서 이불밧헤 손을엿코
 낮빗첵 화순하고 말소리 나직혀여
 한탄을 증흥하고 안부를 무러보며
 가간의 세쇄흔일 소소타고 하지말고
 어른의게 조조무러 씨긴되로 흐기되면
 어른눈의 귀뜱하고 남의소문 총찬이라
 어른의 꾸종숫턱 되척혀며 잡말마고
 어른이 썽닐씩의 두러혀며 원망마라
 되척혀면 역증이요 원망혀면 불순이라
 어른이 잘못흔닐 거역혀며 급피말고
 조조간히 곤친후의 순키혀여 발과여라
 부모가 병들씩의 근심흔빗 낮타니며
 남을되히 말할적의 이을여러 웃지말며
 음식지절 정이혀여 조조나와 권혀면서
 엇던음식 무러면서 식성을 썽라혀라
 병든마암 거역혀면 병중의도 침상이라
 업는거설 잇난다시 지성으로 봉양혀여
 회복흔후 질기모양 여전혀게 낮타니라
 예적사람 구어보니 효성으로 봉양할제

늘근식모 낙치하여 으식지절 전폐하고
 괴식이 엄엄하여 거의죽게 도야찌니
 첫절먹겨 살니여 수삼연을 연명하고
 쏘흔부인 효성잇서 늘근식모 모실적의
 불의예 도적드러 온각지물 탈취할재
 온소술이 도망하되 식모씨을 위로하여
 익인을 무릅씨고 지성으로 이걸하니
 그도적이 감동하여 치하하고 갓다더라
 더운씨의 부치질과 치운날의 군불엿코
 엄동의 천도엇고 설중의 죽순씩고
 어렵궁게 잉어취고 나가싸가 텅자풍어
 각가지로 효양하미 지금씨지 유전하니
 이런일을 칭가하여 쏘바다 하여서라
 그지추 부부인저 금실갓치 화합하여
 어리다고 하지말고 심중의 김푼근원
 일시라도 잊지말고 소중하게 여기여라
 오륜의도 별다르고 삼강의도 웃듬이라
 육십사괘 주역의도 건곤췌가 제일이라
 삼척시편 모사의도 관저쌍이 거수하니
 니성으로 함헌연분 만복의도 근원이라
 청춘홍안 만년인정 익연동낙 괴약할재
 양귀밋히 버섯피고 익발이 서서토록
 의실의가 하온정이 부부밧게 쏘잇는가
 네말이 올타말고 저의말을 쏘초하며
 네마암이 조타마고 저의마암 순키하라
 군주의 착헌형실 부부의게 쏘철지어
 부모마암 툇평키도 부부간의 달니엿고
 온집안이 화목기도 부부간의 달이엿다
 효열지칭 극진하면 어느형실 그를손야
 첨선방적 하는일이 근금하기 제일이오
 음식지절 하는일이 정키하기 주장이라
 준라티 사씨는 주문왕의 후비로서
 칠기키여 옷설지어 씨무든후 씨여입고
 그지차왕 공부인 ㅅㅅ 을키여 잠농질너
 조복제복 지어입피 잠임방적 일삼씨던
 하물며 여염여자 잠신덜 노라불가
 사치헌맘 두지말고 부지런키 하여서라
 덩기전의 행복짓고 춤기전의 동복하여

미리미리 주선하여 예비하기 주장이라
 급시하여 못밧진얼 나부탄이 절노난다
 녀낙자는 살임사라 허랑훈맘 먹지마라
 제왕가이 부귀라도 욕심되로 하기되면
 이목의 하고준지 일할소록 기훈업서
 일조의 망국도야 빈터만 남나니라
 여가의 사는살임 부귀훈이 불버말고
 아무썸록 부지런코 아모썸록 존절하여
 손틈여물 싸을드시 좁쌀훈낫 싹일드시
 힘되로 하고보면 문지모아 톱산이라
 여자의 횡훈도리 훈가지의 빅횡이라
 제사날이 닷치거던 제수등절 준비하여
 반이씨러 정결하고 최소갓좌 썸일적의
 지성을 다하고오면 조선신령 감동하여
 정성썸추 흠향하여 복녹을 네룰니라
 네일이 이러하면 어느일이 민진하리
 소소한 가간스를 너하나 미들지라
 상시사절 분주훈닐 너아니 뉘가하며
 침선방적 훈올일을 너아니고 뉘가하며
 규문정쇄 훈올일을 너아니고 뉘가하며
 정구지임 훈올닐을 너아니고 뉘가하리
 너하나 두고보니 소경압페 도막니라
 뉘가잇서 덕신하며 뉘가잇서 협역할싸
 연약훈 너의몸이 엇천만스 도마트니
 골몰하기 훈올일이 모기둥의 톱산이라
 그럴소록 조심하여 게으른맘 두지마라
 극진하기 훈올닐을 낫낫치 버려시니
 세세하온 이니말을 자서이 침각하여
 조석으로 을식지절 반상기을 버릴적의
 그릇놋키 조심하고 수제소리 니지마라
 남보기의 미편하고 남듯기의 악중이라
 씨는그릇 여수법이 남여간의 별다르니
 서로주어 밧지말며 마조서서 주지말고
 노코간후 집어오며 노와준후 집게하라
 어른의게 드릴적의 빈그릇설 줄지라도
 갓득훈거 갓치하여 조심하여 드리여라
 문밧게 기침소리 문틈으로 보지말고
 집이비여 업실씨의 문밧게 찬는남정

엇볼나고 하지말며 바로되히 화답말고
 헛볼너 하는미리 여초여초 하여서라
 외당의 손님올제 경선하기 나지말며
 말소리 나직하고 우심소리 조심하라
 손의귀가 기다하니 닉정소리 괴장이라
 언형동지 빅형중의 말소리 조심이라
 남을되히 말적의 경선하기 기구말며
 남으게 은밀한말 엇타들어 전갈마라
 니가먼저 피담하면 남도역시 피만하고
 니마리 유순하면 남도또한 순종이라
 조흔말만 가리히도 일평심이 부족하고
 못쓸말을 양언하면 남으지목 두려워라
 헤밋히 도키들고 입숫히 시비잇서
 남의의논 봉등하면 후회막급 어이허리
 네모양이 그만하고 그눈치야 모를손야
 예전성인 착흔마리 함구물설 훈게하니
 일구일심 조심하며 올흔말만 가리하라
 통분흔닐 잇실적의 차물인썸 주장이라
 일평심의 횡할썸시 순할순썸 웃듬이라
 남남이 서로안자 가만이 하는말을
 문여러 보지말고 귀기우려 듯지마라
 남으사람 잘못흔일 니잘한다 디담말고
 남으집의 미진흔닐 빙그리여 의논마라
 이우길의 외정만니 서로서로 피할적의
 멀니피히 도라서서 지닉간후 갈지라도
 여도라 보지말고 처연하기 지닉가라
 니마음의 시른일을 남으몸의 권치말고
 니마음의 하고준닐 남으게 미퍼하라
 남으사람 몃살형실 입을여러 선언말고
 남으사람 착흔형실 귀의익혀 썸바드라
 이거설 심각하여 이디로 하고보면
 형제우의 여게잇고 일가화목 다르잔타
 여즈의 헛난니리 어느거시 부족허리
 부귀가 절노되고 자손이 만이나서
 가문의 빗치나고 복녹이 두터워서
 천추만세 장수하여 무궁무진 하기되면
 뉘아니 총찬하며 뉘아니 울으를싸
 이니마리 변변차니 선후도착 헛엇시나

부디부디 명명하여 썬을바다 횡하여라
할마리 무궁하나 덕강그만 굿치노라
권효가
청춘소연 아히들아 이니말삼 드러보소
천지지간 만물중의 귀한거시 사람이라
사람을 귀타히미 오류으로 일너씨니
오류를 모를진디 금수와 갓할지라
귀타히미 무어신고 부모구존 하신사람
사군지절 고사하고 부모봉양 먼저하소
부모의게 불효하면 동기인정 어이알며
장유유서 봉우신을 안다히미 무어신고
제부모게 부효하놈 타인에게 조와하며

[현대역]

계부사

자부(子婦)야 자부야, 이내 말을 들어봐라.
내 말이 속되나마, 명심(銘心)하여 기록(記錄)하라.
천지간(天地間) 만물(萬物) 중에 인생이 곧 가장 귀하도다.
이 세상의 첫째 재미, 남녀 혼인 제일이라.
기해년(己亥年) 봄 정월에 양쪽 집서 구혼(求婚)할 제,
중매(仲媒) 와서 하는 말이 이웃의 솜씨 있는 한 집안에
쳐녀 있다 말을 하고, 모두 좋다 자랑하네.
이곳저곳 혼처(婚處) 있어 앞 다투어 재촉하되,
살들함이 전혀 없어, 의혹(疑惑)이 많은 자에,
이 곳에 이 중매는 미덥고도 의심 없다.
한마디에 허락하고, 하루 아침 만나서 약속하니,
영천읍 너른 곳에 안동권씨(安東權氏) 명성이라.
아마도 좋은 연분 남녀 인연 이어주는 붉은 줄을 맺었던가.
훌륭한 일 북북 이는 좋은 때요, 복사꽃 화려한 줄은 시기로다.
그 해 가을 빨리 보내, 혼례(婚禮) 날을 택해 정하니,
제일 좋은 길(吉)한 일진(日辰) 초겨울 시월 이십일이라.
하인 불러 재촉하여 인시 초(寅時初)에 출발하니.
달빛은 밝고 환해 갈 길이 확실하다.
두세 참에 이십 리를 순식간에 도달하니,
동방(東方)이 겨우 밝아 인적(人跡)이 고요하다.
문밖에 비겨 서서 이내 마음 굽어보니,
온 마을 사람들이 웃겠노라, 온 집안이 놀래겠다.
때를 잡아 길 떠나서, 이렇게 급한 차림,
좋아라고 하는 일을 그 누구와 의논하리.
혼례 절을 잠간하고, 쉬는 방에 앉았으니,
여러 친구 찾아와서, 오락가락 하는 중에
생각대로 너 못 보와 굵굵하기 그지없다.
짧은 해가 더디 가고, 친구 대접 곁낮이라.
그 이튿날 떠나올 제, 시아버지 뵈는 자리 차린 뒤에
너의 얼굴 잠간 보고, 첫날에 기쁜 마음,
식구들도 그러한가, 너 하나라 그러한가.
흔연히 돌아와서 자랑자랑 하온 뒤에,
온 집안을 둘러보고, 온 식구를 돌아보니,
온화함이 집에 가득 봄바람이요, 자식들도 어지간히 기뻐하는 기색이라.
아마도 보고 준 맘, 한 때가 간절하여,

그리는 맘 둘 데 없다. 시집으로 올 날을 재촉하니,
 십이 월 초사일에 마치 맞게 날이 났다.
 차가운 눈바람 독한 중에 날이 마침 온화하니,
 네 복이라 그러한가. 날씨조차 화합한다.
 잔치 음식 나눠주기 대강하고, 좌우의 손님에게 정한 음식 드리도록,
 안방을 둘러보니, 노소 손님 빈틈없고,
 사랑으로 나가보니, 친구 친척 다 모였다.
 하루 이틀 지내면서 너 오직 두고 보니,
 커다란 이 집 안에 네 한 몸이 가득하다.
 신령스런 너의 모양, 볼수록 기특하다.
 나갔다가 집에 와선 외당(外堂)에서 잠을 잔 뒤 일어나서,
 대문안에 들어설 때, 네가 나와 맞이하면
 즐거운 맘 무궁하여, 기특한 맘 그지없고,
 일시라도 가엽서 발자취 조용하면
 이리저리 엿보며, 식구에게 무르면서,
 한맘으로 섭섭하니 잠신들 잇을쏘냐.
 아버님 어머님 하고 시시 때때 하는 소리,
 귀에 정정 듣고 싶고, 안방 상방(上房) 왕래하여
 분주히 하는 모양, 눈에 삼삼 보고 싶다.
 손아귀 안 보배 사랑, 한번 보면 그뿐이요,
 뜰 앞에 좋은 난초(蘭草), 이에서 바랄쏜가.
 이전의 남의 여식, 오늘은 내 식구라,
 의리(義理)로 지은 인정, 어찌 그리 다정한고.
 무호보저 너뿐이요, 후세(後世) 기대 너뿐이라.
 깊구나, 이내 사랑, 바다가 알팍하고,
 두텁구나, 이내 인정(人情), 태산(泰山)이 가볍도다.
 그럴수록 조심하여 태연한 맘 두지 말라.
 옛날 한 말 그르지 않고, 속담(俗談)이 사리 있는 말이라.
 인정 끝에 쉬가 슬고, 사랑 끝에 원망이라.
 옛 일을 생각하고, 어진 행실 본을 받아,
 칠거지악(七去之惡) 하지 말고, 삼종지도(三從之道) 배워내어,
 일념(一念)으로 먹은 마음, 한 때인들 잇을쏘냐.
 예부터 여자 행실 유순(柔順)함이 으뜸이라.
 시부모 잘 섬기는 사람 도리, 친부모와 다르잖다.
 첫닭 우는 축시(丑時) 초 잠을 깨어, 일찍 일어 머리 빗고 닦을 씻고,
 시부모 계시는 곳 들어가서, 이불 밑에 손을 넣고,
 얼굴빛을 온화하며 순히 하고, 말소리 나직이 해
 한탄함을 증험(證驗)하고, 안부를 물어보며,

그 간의 세세한 일, 자질구레하다 하지 말고,
 어른에게 자주 물어 시킨 대로 하게 되면,
 어른 눈에 기특(奇特)하고, 남에게 소문도 칭찬이라.
 어른의 꾸중 밑에 대처하며 잡말 말고,
 어른이 성낼 때에 두려워하며 원망 말라.
 대처하면 언짢아서 역증(逆症)이요, 원망하면 불순(不順)이라
 어른이 잘못된 일, 거역하며 급히 말고,
 자주 간(諫)해 고친 뒤에, 순히 하여 밝히려.
 부모께서 병들 때에 근심한 빛 나타내며,
 남을 대해 말할 적에 이를 보여 웃지 말며,
 먹고 마실 모든 일을 깨끗이 해 자주 나와 권하면서,
 어떤 음식 자신건가 무르면서, 식성(食性) 따라 권하여라.
 병든 마음 거역하면 병중에도 생각이라.
 없는 것을 있는 듯이, 지성으로 봉양(奉養)하여,
 회복한 뒤 즐긴 모양, 여전하게 나타내라.
 옛날 사람 굶어보니, 효성으로 봉양할 제,
 늙은 시어머니 이가 빠져 입고 먹고 하는 절차 모두 다 폐하고서,
 숨이 곧 끊어질 지경 되어, 거의 죽게 되었더니,
 젓을 먹여 살려내어 수삼 년을 연명(延命)했네.
 또 한 부인 효성 있어 늙은 시어머니 모실 적에,
 뜻밖에 독적 들어 온갖 재물 탈취할 제,
 온 식구들 도망하되, 시어머니 위로하여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고, 지성으로 하소연해,
 그 도적이 감동하여 치하하고 갔다더라.
 더운 때에 부채질과 추운 날에 군불 때고,
 엄동(嚴冬)에 하늘나라 복숭아 얻고,
 눈 속에서 맹종(孟宗)이 죽순 꺾고,
 어름 갠 구멍에서 왕상(王祥)의 잉어 잡고,
 나갔다가 굴을 품고 돌아온 육적(陸績)이 등
 갖가지로 효양(孝養)한 일, 지금까지 세상에 전해오니,
 이런 일을 생각하여 본을 받아 하여서라.
 그 다음은 부부(夫婦)로다. 금실 좋게 화합(和合)하여
 어리다고 하지 말고, 마음속에 깊은 근원 일시라도 잊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여라. 오륜(五倫)에도 특별하고,
 삼강(三綱)에도 으뜸이라.
 육십 사괘(六十四卦) 주역(周易)에도
 건곤괘(乾坤卦)가 제일이라.
 시경(詩經)의 삼백 시편(三百詩篇) 글에서도

관저장(關雎章)이 으뜸이니,
이성(二姓)으로 합한 연분(緣分), 만복(萬福)의 근원이라.
청춘의 예쁜 얼굴 만난 심사 평생 함께 즐기자고 기약할 제,
양쪽의 귀밑에선 버짐피고, 백발 세어 희끗희끗하도록
가정에 의지한 정 부부(夫婦)밖에 또 있는가.
너의 말만 옳다 말고, 저의 말을 좇아하며,
네 마음만 좋다 말고 저의 마음 따르게 하라.
군자(君子)의 착한 행실, 부부에게 끝을 지어,
부모 마음 태평기도 부부간에 달려있고,
온 집안이 화목기도 부부간에 달려있다.
효자와 열녀 행실 극진하면, 어느 행실 그를쏘냐.
길쌈과 바느질의 여자 일은 근검함이 제일이요,
음식 절차(飮食節次) 하는 일은 깨끗함을 오로지할 것이로다.
주(周) 나라 태사씨는 주문왕(周文王)의 후비(后妃)로서,
칠기 캐어 옷을 지어, 때 묻은 후 씻어 입네.
그 다음 지체 높은 왕공 부인(王公婦人) 뽕을 뜯어 누에 길러, 하례 옷과 제사 예복 지어 입혀, 제 임의
의복 길쌈 일삼거든 하물며 마을 여자 잠시인들 놀아볼까.
사치한 맘 두지 말고, 부지런히 하여서라.
덥기 전에 하복(夏服) 짓고, 춥기 전에 동복(冬服)하여
미리미리 주선하여, 예비(豫備)하기 오로지함이라.
때가 돼도 못 미친 일 겁쟁이의 탄식이 절로난다.
넉넉한 자 살림살이 허랑(虛浪)한 마음을 먹지 말라.
세도 있는 제왕(帝王) 집 부귀(富貴)라도 욕심대로 하게 되면,
이목에 하고 준지, 일할수록 기한 없어,
일조(一朝)에 망하게 돼, 빈터만 남느니라.
여염집에 사는 살림, 부귀한 이 부러워 말고,
아무쪼록 부지런하고, 아무쪼록 씩씩이를 아끼어서,
손톱 여물 써는 듯 조금씩 해, 좁쌀 할 알 닦는 듯이
힘대로 정성 들어 하고보면, 먼지 모아 진함태산(塵合泰山) 되느니라.
여자의 행한 도리, 한 가지가 백행(百行) 이라.
제사(祭祀) 날이 다치거든, 제수(祭需) 등 여러 절차 준비하여,
밥쌀 씻어 정결하고, 채소 갖춰 꾸밀 적에,
지성을 다 하오면 선조의 신령께서 감동하여,
정성 좇아 흥향(歆響)하여, 복록(福祿)을 내리니라.
너의 일이 이러하면, 어느 일을 다 못하리.
소소한 집안일은 너 오직 믿으리라.
삼시(三時) 사철 분주(芬走)한 일, 너 아니면 누가 하며,
바느질과 길쌈 일을 너 아니고 누가 하며,

부녀자의 거처에서 깨끗이 하올 일은 너 아니고 누가 하며,
물 길으며 절구질에 수고로운 살림살이, 너 아니고 누가 하리.
너 오직 두고 보니, 봉사 앞에 짙막한 막대기라,
누가 있어 대신하며, 누가 있어 도와줄까.
연약(軟弱)한 너의 몸에 수많은 일 도맡으니,
골물(汨沒)하여 하올 일이 모기둥에 태산(泰山)이라.
그럴수록 조심하여 게으른 맘 두지 말라.
극진하여 하올 일을 날날이 벌렸으니,
세세(細細)한 이내 말을 자세히 생각하며
조석(朝夕)으로 음식 절차, 밥상 그릇 벌리어 놓을 적에 그릇 놓기 조심하고, 수저 소리 내지 말라.
남 보기에 편치 못하고, 남 듣기에 못된 짓이라.
쓰는 그릇 주고받기, 남녀간에 별다르니,
서로 주어 받지 말며, 마주 서서 주지 말고,
놓고 간 뒤 집어 오며, 놓아 준 뒤 집게 하라.
어른에게 드릴 적에, 빈 그릇을 줄지라도,
가뜩한 것처럼 하여, 조심하여 드리어라.
문 밖에 기침 소리, 문틈으로 보지 말고,
집이 비어 없을 때에, 문 밖에 찾는 남자
엿보려고 하지 말며, 바로 대해 화답 말고,
혀를 부려 하는 일을 여차 여차 하여서라.
사랑방에 손님 올 제, 앞질러 나서지 말며,
말소리 나직하고, 웃음소리 조심하라.
손님 귀가 길다 하니, 아낙 소리 쾌장이라.
언행(言行)과 동지(動止)의 온갖 행실 중엔 말소리가 조심이라.
남을 대해 말할 적에 경솔하게 말을 말며, 남에게서 은밀(隱密)한 말, 엿듣고서 전하기를 하지 말라.
내가 먼저 이치 없는 말을 하면 남도 역시 도리에 벗어나고, 내 말이 유순(柔順)하면 남도 또한 순종(順從)하네.
좋은 말만 가려 해도 일평생(一平生)이 부족하고,
못쓸 말을 소리 높여 함부로 하면 남의 지목(指目)이 두려워라.
혀 밑에 도끼 들고, 입 끝에 시비(是非) 있어,
남의 의론(議論) 벌 때처럼 모여들면, 뉘우쳐도 쓸데없어 어이 하리.
네 모양이 그 정도로, 눈치야 모를 소나.
예전에 성인들의 착한 말이 입 다물고 말 말라는 훈계이니, 한 입 한 마음 조심하여 옳은 말만 가려 하라.
통분(痛忿)한 일 있을 적에 참을 인(仁) 자(字) 오로지 할 일이라.
일평생(一平生)에 행할 것이 순할 순(順) 자 으뜸이라,
남남이 서로 앉아, 가만히 하는 말을
문 열어 보지 말고, 귀 기우려 듣지 말라.

남에 사람 잘못된 일, 내 잘한다 장담 말고
남의 집이 못다 한 일, 빙글대며 의논 말라.
내외하는 길에 아낙네 만나 서로서로 피할 적에,
멀리 피해 돌아서서 지나간 후 갈지라도,
여자의 도리로서 보지 말고, 처연하게 지나가라.
내 마음에 싫은 일을 남의 몸에 권치 말고,
내 마음에 펍 좋은 일, 남에게 베풀어라.
남에 사람 몹쓸 행실, 입을 여러 선언(宣言) 말고
남에 사람 착한 행실, 귀에 익혀 본받으라.
이런 것을 생각하여 이대로 하고보면, 형제 우애(兄弟友愛) 여기 있고, 집안 화목(和睦) 다르잖다.
여자의 하는 일이 어느 것이 부족하리.
부귀한 집 절로 되고, 자손이 많이 나서
가문(家門)에 빛이 나고, 복록(福祿)이 두터워서
천추만세(千秋萬歲) 오래 살아, 끝없이 발전하게 되면
누가 아니 칭찬하며, 누가 아니 우려를까.
이내 말이 변변찮아 앞뒤가 뒤바뀌었으나,
부디부디 마음에 깊이 새겨 본받아 행하여라.
할 말은 무궁하나, 대강 그만 그치노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